



스타키 로타리클럽, 창립 후 첫 봉사활동 펼쳐 '제1회 서울시 발달장애인 어울림 볼링대회' 후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앞장서



국내 보청기 판매 1위 스타키그룹(대표 심상돈)이 창립한 스타키 로타리클럽이 첫 봉사활동으로 지난 9월 14일 성동구에 위치한 KB볼링센터에서 열린 2018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어울림 볼링대회와 함께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이번에 처음 열린 서울시 발달장애인 어울림 볼링대회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체육 인구 확대와 균형적 발전을 도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증진 및 화합, 대회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키그룹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번 대회에는 약 200여명의 선수단과 운영진 임원들이 참여했으며 정식경기와 시범 경기등을 선보이며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스타키그룹은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했다. 특히 10여명의 직원이 봉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번 대회에는 박원순 시장 배우자 강난희 여사, 성동구청 정원오 구청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 국제로타리 3650지구 장세호 총재,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서창우 한국파파존스 대표(지구 연수위원장) 등이 참여하며 뜻을 함께 했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국제로타리 3650지구, 스타키그룹, 스타키 로타리클럽 등 다양한 기업 및 봉사단체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또한 심상돈 대표를 포함 스타키그룹 직원으로 구성된 스타키 소셜 엔터프라이즈 로타리클럽 2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 진행 및 정리를 도왔다. 이날 행사의 격려사를 한 강난희 여사는 “발달장애인 볼링이 더욱 더 활성화돼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장애인 체육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타키그룹 심상돈 대표는 난청환자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 공동대표 및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후원회 회장을 겸임하며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